

### 3-1. 유니버설디자인 전문단 구성계기

#### ○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7년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유니버설 사업이라 생각을 했다.

그 턱 나눔 사업을 통해 양천구 전역에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막연한 뿌듯함으로 만족을 하였다.

2018년 같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확대된 개념의 유니버설사업을 진행할까 고민을 하던 중 유니버설디자인협회의 자문을 통해 경사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유니버설한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슈퍼비전을 받고 '경사로' '점자스티커' '핸드레일' '장애인주차구역 도색'까지 범위를 조금씩 넓힐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으니

#### ○ 우리는 누구인가?

세 개 기관에 실문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 없이 같이 어울리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뜻을 함께 하였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평택에 한국복지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의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학교 자체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불편함이 없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 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견학을 하게 되었다.

#### ○ 우리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인가?

견학을 계기로 양천구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지,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의견, 각 영역

전문가들의 식견 등이 어울려야 함을 알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 언급된 모든 분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학과 교수, 색채전문가, 픽토그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실무자, 담당 공무원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 ○ 전문가는 역시 다르다?

유니버설디자인 전문단이 구성된 후 회의를 수차례 하면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 하나 하나가 사업을 구체화 하는 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을 돌아본 후 제시하는 의견을 유니버설 디자인 전공교수님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틀, 색채 전문가가 제공하는 색채가 갖는 장점, 픽토그램이 발달장애인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전문가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 3-2. 유니버설디자인 전문단 소개

인원	구분	이름	소속
1	전문단	임진이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교수
2		조명민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 / 픽토그램전문가
3		강현실	유한대학교 디자인대학 산학협력교수 / 색채전문가
4		김지현	인권교육센터 장애인권 강사 / 무장애연대모니터링단
5		민시현	당사자 자조모임과 발달장애인 모임임원
6	실무자	김형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
7		장진영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담당
8		김인수	좋은세상 이웃사람들 자립생활센터 국장
9		노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리
10		홍철우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 사업담당

### 3-3.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추진방향

#### 유니버설디자인(UD)의 대상자

최근의 사회적 이슈는 고령화, 다문화 등 기존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는 단일민족,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들 또한 연령, 신체적 감각, 정신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다양한 차이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다문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연령, 사용언어, 신체의 크기와 특성, 지적 능력, 정신건강, 감각적 특성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 장애인 및 색약자

신체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지능력이나 감각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언어장애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범위를 신체에 한정하는 것보다 보다 폭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림이나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도 수화나 점자, 소리, 시각적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각 정보를 활용할 경우, 색채, 사인물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인지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명확한 색상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의 역할을 명시하고 색채가 지닌 심리적 효과를 활용하여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색상을 적절히 활용하면 인간의 기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일관된 정보나 규칙을 적용하면 이용자는 잘못된 기억을 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공공기관의 출입구 색을 밝은 색으로 통일하면,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낮선 곳에서 공공기관을 찾기 쉬울 것이다. 혹은 각 층마다 다른 색상을 적용하면 숫자를 보지 않고도 몇 층에 있는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색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색약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쉬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애주기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아이의 경우, 키가 작아 성인의 눈높이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낮은 위치에서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좋다. 또한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모차 이용 시를 고려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은 노화로 인한 근력 수축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진다. 보행에 제한이 발생하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긴 거리를 이동할 때 중간에 쉴 수 있는 충분한 벤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노인은 인지 능력의 저하로 정보를 식별하거나 조작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아이와 노인의 특성은 장애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보행의 불편과 인지 능력의 저하, 낮은 눈높이가 그러한 것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에게 편한 공간은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세상은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하면 특정 사람만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신체 능력에 따른 특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고려 사항(문화체육관광부, 2013)

생애주기	신체 능력의 특성과 고려 사항
장애인 및 색약자	- 특징 특정 장애 유형은 보행 속도 느림, 보조기구의 사용(휠체어 등), 손이나 발의 움직임 제어의 어려움, 한 손 혹은 두 손이 없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도달 범위가 다름, 글로 정보를 인지할 수 없거나 색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고려 사항 보조기구의 크기를 반영한 충분한 공간 제공, 여달이문보다 미달이나 자동개폐문 설치, 가구의 높이, 깊이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명확한 색상 사용, 색상의 심리 효과 활용
영유아 및 동반자	- 특징 수유 및 기저귀 교체 장소 필요, 유모차 동행 시 넓은 공간 확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출입구 개폐의 어려움, 추상적인 정보나 글로 구성된 정보 이해 어려움  - 고려 사항 넓은 공간의 수유공간 마련, 화장실 내 기저귀 교체 장소(남여화장실) 짐 운반을 위한 서비스 제공, 미달이 혹은 자동문 설치, 아동의 이해도를 고려한 정보 제공 지원

생애주기	신체 능력의 특성과 고려 사항
노인	- 특징 먼 거리 이동의 어려움, 보행 시 보조기구에 의존, 작은 글씨 인지 어려움, 작은 소리 인지 어려움, 복잡한 정보 인지의 어려움 등  - 고려 사항 장거리 이동 시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 조성, 보조기기 이용 시 여유 공간의 마련, 원색과 큰 글씨의 사용, 단순한 정보 제공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을 의미한다.	

유니버설디자인(UD)의 중요성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중 15%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6.6%는 영유아이며, 영유아 동반자를 고려하면 그 수는 거의 2배가 넘을 것이다. 또한 장애 인구는 5%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3.9%이다(통계청, 2018). 고령화와 세계화의 추세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다양한 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요구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 환경 정비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나이, 신체적 능력, 신장, 장애, 언어 능력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국적, 연령, 신체적 특성, 성별, 질병 등으로 인한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 능력, 지속 가능한 체력, 일시적인 불편감 등 다양한 다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공공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한 도움은 필요 없어야 하고 처음 방문한 곳이어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길을 잃더라도 금방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을 담은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을 포용하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공공공간과 건물을 구성할 수 하여야 한다.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고비용을 투자하여 변화를 유도하여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면 더욱 좋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양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현실성과 편의성을 담은 공통된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17).



평균에서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존의 환경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의 방법만 활용하도록 조성되어왔다. 예를 들면, 폭 90cm인 출입문이다. 이 출입문은 평균 성인 1인이 지나가기에 넉넉한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임산부, 아동과 동반하는 성인,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다소 좁다. 평균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사회에 대비하면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서울특별시, 2017).

### ○ 심리적인(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물질적 풍요의 삶은 점차 늘고 있으나 정신적 풍요의 삶은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실제로 성인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적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 심리적 문제를 감소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간의 색채, 온도, 습도 등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ohen, 1978), 이러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과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의 마련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재료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제공한다. 차가운 재료보다는 따뜻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친밀한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일, 스틸 등의 재료는 차가운 느낌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고 목재, 패브릭 등의 재료는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것이 좋다.

## 위치의 특성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UD) 필요성

공원, 전시장, 도서관, 시청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공공시설들은 연령, 성별, 민족에 관계없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시설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 끝에 물리적 접근성의 양은 확대되었으나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질적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공공 성격의 건물들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 ○ 공원

공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인이나 영유아 등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 접근로는 최대한 평탄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설치할 경우,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 인근의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 구역보다 그 너비가 훨씬 넓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공원의 산책로, 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안내시설의 경우 야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하여 최대한 픽토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누구나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문화시설의 출입구, 화장실, 공연장 및 전시장 등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시설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 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동선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방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과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를 고려하면 좋다. 그리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위치 선정 또한 중요하다. 공공기관 내 외부 출입구 근처에 기관의 지도나 안내도, 사인물 등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면 이용자는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다소 중압감을 느끼기 쉽다. 따라서 폐쇄적인 담장 대신 친화적인 식재를 활용하고 최대한 개방감을 주는 것이 좋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천구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고려하여 “시와 묵향의 거리”를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 2019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활동자료집

# 4.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단 활동

4-1. 유니버설디자인 전문단 활동보고

4-2. '시와 묵향의 거리'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제안

4-3.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조성 제안



### 4-1.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활동보고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실무자 모임

No	내용	일시	참석인원
1	1차 회의	2019.05.28(수) 17:00~18:00	이강조 국장,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 최수광, 강지혜, 양지윤 주무관, 임진이 교수, 조명민, 강현실, 김지현, 민시현(13명)
2	2차 회의	2019.07.25(목) 16:00~18: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 조명민, 김지현(6명)
3	3차 회의	2019.08.07(수) 16:00~18: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 김재창 팀장, 강지혜 주무관(8명)
4	4차 회의	2019.11.15(금) 11:00~13: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 홍철우 주무관, 임진이 교수, 조명민, 강현실, 김지현, 민시현 (10명)
5	5차 회의	2019.10.04(금) 11:00~13: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강현실, 임진이(5명)
6	6차 회의	2019.12.06(금) 10:00~12: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노진영 간사, 임진이 교수, 조명민, 강현실(7명)

####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실무자 모임

No	내용	일시	참석인원
1	1차 모임	2019.03.05(화) 10:00~12:00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3명)
2	2차 모임	2019.03.27(수) 16:00~18: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노진영 간사, 임진이 교수 (5명)
3	3차 모임	2019.05.28(수) 17:00~18:00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김인수 국장, 손수민, 노진영 간사, 구미정, 김재창 팀장, 강지혜 주무관(8명)

###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회의록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1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5. 28(수) 17: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실무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강조, 김형준, 장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자문단	양천구청	최수광, 강지혜, 양지윤
		한국복지대학교	임진이
(주)밀리그램		조명민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합 계		13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후보 나. 후보 현장답사 다. 기타 논의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후보	▶ 기존 후보 - 1안 : 해와 별의 거리부터 시와 묵향의 거리 - 2안 : 법안정사부터 파리공원에 이르는 인도 - 3안 : 임대아파트 혹은 전통시장 ▶ 논의사항 - 1안의 경우 구청의 협조가 가능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나, 장애물이 적어 비장애인 입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자각하는 효과가 미비함. - 하지만 1안 구역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정표가 적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차, 어르신, 유아 등 모든 연령대가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정표가 필요 - 현장 답사를 통해 구역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 시간대별 이용자, 조명 등을 확인하고,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비장애장애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요인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 - 작은 요소라도 시민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우리 모두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함. 예를 들어, 비상벨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의 '유니버설디자인 요소'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
	나	후보 현장답사	▶ 1안 현장답사 1) 해와 별의 거리 - 큰 장애물은 없으나 거리 초입에 턱이 있음 - 자전거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음 - 이정표가 적어 길 찾기가 어려움 - 전문가 의견 : 바닥 유도라인, 보기쉬운 이정표, 통행길 분리, CCTV



		<p>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p> <p>2) 시와 목향의 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 조각이 위치가 일정하지 않게 배치되어있어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음</li> <li>- 유모차·휠체어·자전거 통행량이 많음에도 통행로가 도로 깔려있어 돌발 상황에 큰 위험요인이 되며, 실제로 '유모차와 휠체어가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보았다, 비가 오면 아주 미끄러워 넘어질때가 있다' 라는 장애당사자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통행로가 2개로 분리되어있으나 오고 가는 보행자가 인식하지 못해 '해와 별의 거리'부터 온 자전거이용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생김</li> <li>- 전문가의견 : 통행로 분리와 유도라인, 돌조각 위치 재정리, 조명·기동 재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ul>
사진자료	다	<p>기타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처럼 1년 안에 마무리되는 단기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역 선정이 필요</li> <li>- 양천구민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구성이 필요</li> <li>- 시간과 예산이 적어 대대적인 시공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구청이 구역 설정부분에서 지원한다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li>-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을 만들기위한 시공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다른 안건 고민이 필요 (ex. AAC 등)</li> </ul>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단 활동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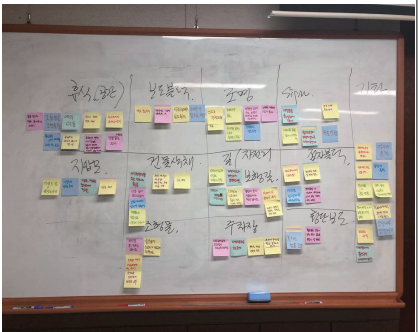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2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7. 25(목) 16: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실무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자문단	(주)밀리그램	조명민							
		-	김지현							
	합 계		6명							
회의 내용	<p>1. 논의사항</p> <p>가. 1차 회의내용 공유</p> <p>나. 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p> <p>다. 기타논의</p> <p>2. 세부내용</p> <p>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논의내용</th> <th>논의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1차 회의내용 공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논의</li> <li>- 현장답사를 통해 '해와 별의 거리'보다 '시와 목향의 거리'에 다양한 문제점 보완사항이 있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시와 목향의 거리' 주요 문제점</li> <li>- 보행자·자전거이용자의 구분이 어려워 충돌위험이 있음.</li> <li>- 유모차·휠체어·자전거 통행량이 많음에도 통행로가 도로 깔려있어 돌발 상황에 큰 위험요인이 되며, 실제로 '유모차와 휠체어가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보았다, 우천시 아주 미끄럽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전문가의견 : 통행로 분리와 유도라인, 돌조각 위치 재정리, 조명·기동 재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ul> </td> </tr> <tr> <td>나</td> <td>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li> <li>- 유니버설디자인이 보통 신체적장애에만 치우친 권장내용이 많음</li> <li>-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물리적환경의 개선은 심리적인정·욕구 해소, 정보습득 등을 위해 필요함</li> <li>▶ 시각적 즐거움</li> <li>- 심리적 안정과 감각의 즐거움을 주는 색채와 패턴</li> <li>- 색채와 패턴이 장애당사자의 욕구해소와 감정의 완화에 영향을 줌</li> <li>▶ 정보의 전달 - 픽토그램</li> <li>- 많은 정보가 있어도 가장 적은 에너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li> <li>- 외국인·어르신·장애인·어린이도 알기 쉬운 그림문자</li> <li>- 재난시 대피로를 알려주는 픽토그램 (화재, 긴급상황, 도움요청 등)</li> <li>- 양천구 내에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그림으로 알려주는 픽토그램 디자인</li> <li>▶ 휴게공간</li> <li>- 벤치, 햇빛가림막 등 사소한 요소가 유니버설디자인임을 알리는 요소</li> <li>- 우산이 없어도 비를 맞지 않고 걷는 거리</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1차 회의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논의</li> <li>- 현장답사를 통해 '해와 별의 거리'보다 '시와 목향의 거리'에 다양한 문제점 보완사항이 있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시와 목향의 거리' 주요 문제점</li> <li>- 보행자·자전거이용자의 구분이 어려워 충돌위험이 있음.</li> <li>- 유모차·휠체어·자전거 통행량이 많음에도 통행로가 도로 깔려있어 돌발 상황에 큰 위험요인이 되며, 실제로 '유모차와 휠체어가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보았다, 우천시 아주 미끄럽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전문가의견 : 통행로 분리와 유도라인, 돌조각 위치 재정리, 조명·기동 재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ul>	나	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1차 회의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논의</li> <li>- 현장답사를 통해 '해와 별의 거리'보다 '시와 목향의 거리'에 다양한 문제점 보완사항이 있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시와 목향의 거리' 주요 문제점</li> <li>- 보행자·자전거이용자의 구분이 어려워 충돌위험이 있음.</li> <li>- 유모차·휠체어·자전거 통행량이 많음에도 통행로가 도로 깔려있어 돌발 상황에 큰 위험요인이 되며, 실제로 '유모차와 휠체어가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보았다, 우천시 아주 미끄럽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li> <li>- 전문가의견 : 통행로 분리와 유도라인, 돌조각 위치 재정리, 조명·기동 재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ul>								
나	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적장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li> <li>- 유니버설디자인이 보통 신체적장애에만 치우친 권장내용이 많음</li> <li>-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물리적환경의 개선은 심리적인정·욕구 해소, 정보습득 등을 위해 필요함</li> <li>▶ 시각적 즐거움</li> <li>- 심리적 안정과 감각의 즐거움을 주는 색채와 패턴</li> <li>- 색채와 패턴이 장애당사자의 욕구해소와 감정의 완화에 영향을 줌</li> <li>▶ 정보의 전달 - 픽토그램</li> <li>- 많은 정보가 있어도 가장 적은 에너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li> <li>- 외국인·어르신·장애인·어린이도 알기 쉬운 그림문자</li> <li>- 재난시 대피로를 알려주는 픽토그램 (화재, 긴급상황, 도움요청 등)</li> <li>- 양천구 내에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그림으로 알려주는 픽토그램 디자인</li> <li>▶ 휴게공간</li> <li>- 벤치, 햇빛가림막 등 사소한 요소가 유니버설디자인임을 알리는 요소</li> <li>- 우산이 없어도 비를 맞지 않고 걷는 거리</li> </ul>								

		<p>▶ 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대피로 안내, 안정된 분위기 조성 등의 역할</li> </ul>
다	기타 논의	<p>▶ 장애인권교육센터와의 협력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와 목향의 거리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는 현재 시와 목향의 거리에서 장애체험을 하며, 거리에 있는 문제점을 찾고 어려움을 확인한다고 한다.</li> <li>- 유니버설디자인 요소가 있는 거리가 된다면 장애인권교육시 참여자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 이라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음.(현재 장애인권교육센터 강사로 활동 중)</li> </ul> <p>▶ 욕구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와 목향의 거리 근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문제점 욕구조사</li> <li>- 욕구조사시 연령, 장애유무 구분</li> <li>- 조명, 정보전달, 색채, 휴게공간 등 구분하여 욕구조사 진행</li> </ul>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자문단 활동자료집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3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8. 7(수) 16: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실무자	구분	소 속	참석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김인수											
	자문단		양천구청	홍철우											
			한국복지대학교	임진이											
			(주)밀리그램	조명민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김지현, 민시현													
	합 계		10명												
회의 내용	<p>1. 논의사항</p> <p>가. '해와 별의 거리 ~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p> <p>나. 자문단 역할 분배 및 기관의 역할</p> <p>다.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사업 협의</p>														
	<p>2. 세부내용</p> <p>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논의내용</th> <th>논의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양천구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td> <td>- 논의결과 자료 첨부</td> </tr> <tr> <td>나</td> <td>자문단 역할 분배 및 기관의 협력</td> <td> <p>▶ 자문단 역할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실무자위원장 논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위원이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자료를 취합하여 4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li> <li>- 조감도 제작은 공정성을 위해 위원단내에서 진행하기보다 타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함</li> </ul> <p>▶ 기관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사업이 연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많아 이에 대해 수정계획서 및 예산변경승인 요청 필요</li> <li>- 위원단이 조사하고 계획한 자료는 서울시기준에 맞게 예산 집행</li> </ul> </td> </tr> <tr> <td>다</td> <td>사업 협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거리만들기 사업을 올해 시공까지 목표하기에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가 필요하여 어려운 점이 있음.</li> <li>- 따라서, 올해 목표는 양천구에 '가장 이상적인 유니버설디자인거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함.</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양천구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논의결과 자료 첨부	나	자문단 역할 분배 및 기관의 협력	<p>▶ 자문단 역할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실무자위원장 논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위원이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자료를 취합하여 4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li> <li>- 조감도 제작은 공정성을 위해 위원단내에서 진행하기보다 타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함</li> </ul> <p>▶ 기관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사업이 연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많아 이에 대해 수정계획서 및 예산변경승인 요청 필요</li> <li>- 위원단이 조사하고 계획한 자료는 서울시기준에 맞게 예산 집행</li> </ul>	다	사업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거리만들기 사업을 올해 시공까지 목표하기에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가 필요하여 어려운 점이 있음.</li> <li>- 따라서, 올해 목표는 양천구에 '가장 이상적인 유니버설디자인거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함.</li> </ul>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양천구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논의결과 자료 첨부													
나	자문단 역할 분배 및 기관의 협력	<p>▶ 자문단 역할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실무자위원장 논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위원이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자료를 취합하여 4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li> <li>- 조감도 제작은 공정성을 위해 위원단내에서 진행하기보다 타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함</li> </ul> <p>▶ 기관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사업이 연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많아 이에 대해 수정계획서 및 예산변경승인 요청 필요</li> <li>- 위원단이 조사하고 계획한 자료는 서울시기준에 맞게 예산 집행</li> </ul>													
다	사업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거리만들기 사업을 올해 시공까지 목표하기에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가 필요하여 어려운 점이 있음.</li> <li>- 따라서, 올해 목표는 양천구에 '가장 이상적인 유니버설디자인거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함.</li> </ul>													



사진자료		
		
기타	<p>□ 자문단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감도 작성까지 각 위원들의 의견·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해야함.</li> <li>- 색채의 정확도, 디자인의 어울림 등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빔보다는 선명한 화질을 보여 실시간으로 시각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람.</li> <li>- TV모니터를 활용하여 휴대폰, 노트북을 바로 연결하여 자료를 보여 회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음.</li> </ul>	
첨부	<p>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정리 2.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임진이고수). 곱.</p>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단 활동자료집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4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9. 24(화) 16: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소속	참석자							
	실무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김인수							
	자문단	양천구청	김재창, 홍철우							
		(주)밀리그램	조명민, 남지현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장애당사자	김지현								
	합계	9명								
회의내용	<p>1. 논의사항</p> <p>가. 3차 회의 내용 공유</p> <p>나. 유니버설디자인거리 조감도제작 TFT구성</p> <p>2. 세부내용</p> <p>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논의내용</th> <th>논의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회의 내용 공유</td> <td>- 해와 별의 거리 ~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리내용 확인 - 단순한 조감도 제작을 위한 예산집행은 어려움</td> </tr> <tr> <td>나</td> <td>조감도제작 TFT구성</td> <td>-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한 인력을 더 확충해서 TFT를 구성 - 예산 : 좋은세상이웃사람들IL센터(1,000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2,000만)의 예산을 합쳐 총3,000만원 - 활동 : 컴퓨터로 제작하기보다 가벼운 스케치드로잉으로 조감도 제작 : 한 장소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감도 스케치 진행 (후보 : (주)밀리그램 사무실) :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활동비 지출 : 완성된 조감도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표, 구청장 참석 요망 : 건축설계, 디자인, 색채 총 3가지면 고려 / 앞서 정리한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스케치진행 : TFT가 1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1개의 조감도를 구상할지, 2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2개를 구상할지, 기타 방법적인 면은 추가논의 필요 : 2개의 팀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을 나누어 집행 : 활동일지 양식, 활동지침 작성 필요</td> </tr> </tbody> </table>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회의 내용 공유	- 해와 별의 거리 ~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리내용 확인 - 단순한 조감도 제작을 위한 예산집행은 어려움	나	조감도제작 TFT구성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회의 내용 공유	- 해와 별의 거리 ~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리내용 확인 - 단순한 조감도 제작을 위한 예산집행은 어려움								
나	조감도제작 TFT구성	-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한 인력을 더 확충해서 TFT를 구성 - 예산 : 좋은세상이웃사람들IL센터(1,000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2,000만)의 예산을 합쳐 총3,000만원 - 활동 : 컴퓨터로 제작하기보다 가벼운 스케치드로잉으로 조감도 제작 : 한 장소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감도 스케치 진행 (후보 : (주)밀리그램 사무실) :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활동비 지출 : 완성된 조감도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표, 구청장 참석 요망 : 건축설계, 디자인, 색채 총 3가지면 고려 / 앞서 정리한 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스케치진행 : TFT가 1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1개의 조감도를 구상할지, 2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2개를 구상할지, 기타 방법적인 면은 추가논의 필요 : 2개의 팀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을 나누어 집행 : 활동일지 양식, 활동지침 작성 필요								
사진자료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문단 활동자료집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문단 활동자료집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5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10. 4(금) 11:00~13: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소속	참석자
	실무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자문단	(주)밀리그램	조명민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한국복지대학교	임진이
합계		5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조감도제작 TFT 업무 분배 및 활동방향 나. 추가 검토사항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회의 내용	가	조감도제작 TFT 활동방향 및 업무분배	1) 활동방향 - 지난 4차회의에서 TFT가 1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1개의 조감도를 구상할지, 2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2개를 구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전문가문단 3인의 논의를 통해 2개의 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간 및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여, 1개의 팀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2) 업무분배 - 두가지 논의 사항 ① 거리를 단계별로 나누어 각자 디자인 ② 큰 틀을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갈 내용은 함께 구상하여 추가 디자인 - 논의 결과 : 단계별로 나누어 디자인하는 것은 통일성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그리되, 그 위에 들어갈 조명·픽토그램·조형물·색채디자인 등은 전문가간 논의를 통해 추가함.
	나	추가 검토사항	1) 성과보고회 - 12월 중순예정, 조감도 발표 2) TFT의 구성 및 활동지원 - 활동일지 작성 - 활동비
사진자료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6차 회의록			
진행일시	2019. 12. 6(금) 10:00~12: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소속	참석자
	실무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IL센터	노진영
		좋은세상이웃사람들IL센터	김인수
	자문단	(주)밀리그램	조명민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한국복지대학교		임진이	
합계		7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유니버설디자인거리 TFT 기획안 사전 발표 및 의견조율 나. 성과보고회 사전논의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회의 내용	가	TFT 기획안 사전발표 및 의견조율	- 구조물이 많아 통행이 불편하고, 저녁에는 어두워서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있다는 시민의견조사에 의한 디자인 시작 - 외국인이 많고 주말에 사람이 적은 지역적 특성 고려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활용 - 단순히 편안한 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이하고 활용 가능한 구조물로 'Fun'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 플라마켓, 야외극장, 버스킹공연 공간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 추가적으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23일 성과보고회에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
	나	추가 검토사항	- 11:00 준비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14:00 성과보고회 진행 - 임진이 교수 : 유니버설디자인거리 기획안 발표 / 약 40분 소요 - 전체 성과보고회 사회 : 김인수 국장 -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경과보고 : 김형준 팀장 - 2부 유니버설디자인 포럼 참여자 모집 : 노진영 간사
사진자료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문단 활동자료집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문단 활동자료집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기관 실무자 1차 모임				
진행일시	2019. 3. 5(화) 10:00~12: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진영 사회복지사	
	2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국장	
	3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간사	
	합 계		총 3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나. 사업진행방향 협의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좋은세상이웃사람들 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cm턱나눔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설치 -높낮이 조절 테이블 -AAC	-경사로 -양천구 편의시설 지도	-경사로 -도움안전벨
	유니버설 디자인단	-전문가디자인단 -장애당사자디자인단 -청소년디자인단	-장애당사자 디자인단	-자문위원단 -장애당사자 디자인단
	나. 사업진행방향 협의			
	구분	세부내용		
홍보지제작	- 3개 기관 사업을 홍보하는 1개의 홍보지 제작. (포스터 1개, 리플렛 1개) - 포스터 제작 예산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리플렛 제작 예산 : 좋은세상이웃사람들, IL센터 - 역할 분담은 추후 모임을 통해 결정			
현판제작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경사로, 자동문), 사람사랑양천장애인IL센터(도움안전벨) 사업 진행시 공동제작			
유니버설 디자인단	전문가	-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기보다 상반기 마무리부터 자문위원을 모집하여 하반기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 각 기관의 실무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기관의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		
	장애 당사자	- 3월 22일까지 각 기관에서 유니버설디자인단을 모집 - 모집된 유니버설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사람사랑양천장애인IL센터에서 집체교육 - 장애당사자 유니버설디자인단에 대한 진행 예산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람사랑양천장애인IL센터가 공동집행 - 기존에는 구역을 나눠 활동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정해진 구역 없이, 당사자의 생활반경에 맞게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		
구청	- 오늘 10cm사업 담당자인 강지혜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하여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청과 사업진행사항을 공유하기로 함.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기관 실무자 2차 모임			
진행일시	2019. 3. 27(수) 16: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2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국장
	3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간사
	4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임진이교수
	합 계		총 5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2019 유니버설디자인 진행방향 논의		
	1) 유니버설디자인 장기프로젝트		
	2) 유니버설디자인단		
	3) 10cm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 경사로설치		
	4) 도움벨 캠페인		
	나. 다음 회의 일정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1)	유니버설디자인 장기프로젝트	- 지난 3월 18일 회의, 구청측에서 유니버설디자인개념 확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복지대학교 임진이교수와 논의. - 양천구내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조명·도색·표지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 - 연구진행방법 : 시공할 구역 이용자·공간 특성 조사 / 유니버설디자인단과 기획회의 후 계획수립.	
가-2)	유니버설디자인단	- 전문가3인·실무자3인·장애당사자2인·구청소속1인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구역의 설정, 기획단계에서 의견 나눔	
가-3)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경사로 설치	- 사업이 진행되었던 구역에 대부분 경사로가 설치되어, 예전처럼 많은 곳에 경사로 설치를 진행하기는 어려움. - 2018년 180곳 설치를 목표로했던 것과 비교하여 올해는 60곳 설치로 하향조정 -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곳을 개발하여 한 기관에서 취합 후 설치진행	
가-4)	도움벨 캠페인	- 가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도움벨을 누르면 사업주가 가게출입·착석 등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는 사업주 동의 후, 인증마크인 도움벨을 가게 주출입구에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으로 진행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문단 활동자료집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기관 실무자 3차 모임																										
진행일시	2019. 5. 28(수) 17:00~18: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2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국장, 손수민(뉴딜일자리)																							
	3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간사, 구미정(뉴딜일자리)																							
	4	양천구청	김재창팀장, 강지혜주무관																							
	합 계	총 8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자문단 구성과 역할 나. 위촉식 일정 다. 기타사항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자문단 구성&역할	▶ 자문단 구성 - 총 10명 (전문가 자문단 5인, 실무자 5인) - 유니버설디자인픽토그램색채 관련 전문가 및 장애당사자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자문단 역할 - 유니버설디자인 시공 구역 선정 후 설계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으로 의견제출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선례가 미비 → 시범적 역할 - 올해 사업에 국한된 의견이 아닌,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의 중장기계획 전반적인 내용 논의 - 도로로 결정될 경우 각 기관 실무자는 도로 인근 상가와 협의하여 경사로 도용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																							
	나	위촉식 일정	▶ 위촉식 - 6월 19일 (수) 16:00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소속</th> <th>이름</th> <th>업무분장</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td> <td>김형준</td> <td>-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2017~2019 사업설명</td> </tr> <tr> <td>2</td> <td></td> <td>장진영</td> <td>- 사전 세팅 및 참석자 확인 - 사진촬영</td> </tr> <tr> <td>3</td> <td>양천구청</td> <td>강지혜</td> <td>- 위촉장 제작 - 보도문 작성과 배포</td> </tr> <tr> <td>4</td> <td>사람사랑양천센터</td> <td>노진영</td> <td>- 장애당사자 위원 연락</td> </tr> <tr> <td>5</td> <td>좋은세상이웃사람들</td> <td>김인수</td> <td>- 회의록 작성</td> </tr> </tbody> </table>	NO	소속	이름	업무분장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2017~2019 사업설명	2		장진영	- 사전 세팅 및 참석자 확인 - 사진촬영	3	양천구청	강지혜	- 위촉장 제작 - 보도문 작성과 배포	4	사람사랑양천센터	노진영	- 장애당사자 위원 연락	5	좋은세상이웃사람들	김인수
NO	소속	이름	업무분장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만들기 2017~2019 사업설명																							
2		장진영	- 사전 세팅 및 참석자 확인 - 사진촬영																							
3	양천구청	강지혜	- 위촉장 제작 - 보도문 작성과 배포																							
4	사람사랑양천센터	노진영	- 장애당사자 위원 연락																							
5	좋은세상이웃사람들	김인수	- 회의록 작성																							
다	기타사항	▶ 시공 구역 선정 1) 1안 : '해와 달의 거리' - 주민공청회, 도로건설과등 협의가 필요함. - 양천경찰서 뒤 담벼락을 포함하여 고려																								

- 2) 2안 : 파리공원~법안정사 거리'  
- 유동인구가 많고, 넓은 인도
  - 3) 3안 : 임대아파트 및 지하철역 등
- ▶ '위에이블'과 연계
- 휠체어가 이용가능한 시설이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위에이블'
  -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양천구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 → 위에이블과 논의 필요

사진자료



10cm 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기관 실무자 4차 모임										
진행일시	2019. 11. 15(금) 11:00~13:00		장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준, 장진영 사회복지사							
	2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인수 국장							
	3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자립생활센터	노진영 간사							
	합 계		총 4명							
회의 내용	1. 논의사항 가.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성과보고회 논의 나. 고려사항									
	2. 세부내용 가. 2019년 사업계획 공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논의내용</th> <th>논의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성과보고회 논의</td> <td>                             □ 성과보고회 내용                              -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흐름                              - 유니버설디자인거리 기획안 제시                              - 양천구와 유니버설디자인,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 토크시간                               □ 성과보고회 일정                              - 12월 23일 (월) 또는 24일 (화) 중 일정조율 / 14:00 ~ 16:00                              - 성과보고회 이전 유니버설디자인전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 성과보고회 내용공유 : 12월 4일 (수) 또는 6일 (금)                               □ 기타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지도 배포 고려                              - 토크시간에 참여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앙케이트 조사                              ex. 양천구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은?                              (1. 경사로 2. 도움벨 3. 유니버설디자인거리 4. 편의시설 어플 5. AAC 6. 픽토그램지도)                         </td> </tr> <tr> <td>나</td> <td>고려사항</td> <td>                             □ 고려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지도 제작이 가능한지?                              - 성과보고회 장소대관 여부 (해누리타운 장애체험관)                              - 기관별 일정 가능여부                         </td> </tr> </tbody> </table>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성과보고회 논의	□ 성과보고회 내용 -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흐름 - 유니버설디자인거리 기획안 제시 - 양천구와 유니버설디자인,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 토크시간  □ 성과보고회 일정 - 12월 23일 (월) 또는 24일 (화) 중 일정조율 / 14:00 ~ 16:00 - 성과보고회 이전 유니버설디자인전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 성과보고회 내용공유 : 12월 4일 (수) 또는 6일 (금)  □ 기타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지도 배포 고려 - 토크시간에 참여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앙케이트 조사 ex. 양천구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은? (1. 경사로 2. 도움벨 3. 유니버설디자인거리 4. 편의시설 어플 5. AAC 6. 픽토그램지도)	나	고려사항
구분	논의내용	논의결과								
가	성과보고회 논의	□ 성과보고회 내용 -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지역만들기 흐름 - 유니버설디자인거리 기획안 제시 - 양천구와 유니버설디자인,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 토크시간  □ 성과보고회 일정 - 12월 23일 (월) 또는 24일 (화) 중 일정조율 / 14:00 ~ 16:00 - 성과보고회 이전 유니버설디자인전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 성과보고회 내용공유 : 12월 4일 (수) 또는 6일 (금)  □ 기타 -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지도 배포 고려 - 토크시간에 참여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앙케이트 조사 ex. 양천구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은? (1. 경사로 2. 도움벨 3. 유니버설디자인거리 4. 편의시설 어플 5. AAC 6. 픽토그램지도)								
나	고려사항	□ 고려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지도 제작이 가능한지? - 성과보고회 장소대관 여부 (해누리타운 장애체험관) - 기관별 일정 가능여부								

## 4-2. '시와 목향의 거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제안

### ○ '시와 목향의 거리'의 역사

시와 목향의 거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2002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영향을 주고자 17점의 명시를 설치하였는데, 분수대와 함께 자연석에 시의 내용을 새겼다. 김구, 안창호, 윤봉길, 김정희 등의 탁본 4점과 나용선사의 '나용선사 시', 박목월의 '나그네', 김용택의 '참 좋은 당신', 유안진의 '설록차', 윤동주의 '서시', 이은상의 '푸른 민족', 이해인의 '파도의 말', 이희승의 '박꽃', 정훈의 '동백', 천상병의 '귀천', 이호우의 '정좌', 한용운의 '사랑', 윤선도의 '대나무', 백거이의 '채근담'의 등의 글이 있다(두산백과). 또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시 동호회에서 선호하는 시를 추천 받아 매달 다양한 시를 제공하고 있다(강서양천일보, 2005).

### ○ '시와 목향의 거리' 선정이유

#### ① 이동수단의 어려움

시와 목향의 거리는 폭 10m, 길이 100m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라고 하기에 다소 짧은 구간이지만 다양한 구조물,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걷기에 복잡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와 목향의 거리임을 알리는 비석과 다양한 시가 새겨진 돌들과 또한 휠체어 이동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자갈밭 길도 있다. 맨발로 걷기에 효과가 좋은 자갈밭 길이라고 하나, 최근 들어 그 길을 맨발로 걷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보행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조형물과 가로등 시설은 야간 통행 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② 산만한 공간 구성

시와 목향의 거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양천구구체육관의 구조물이다. 체육회관의 색상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주황색의 H빔을 사용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좁은 부위에 주황색을 사용하면 심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넓은 부위에 주황색을 사용하면 심적으로 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목향의 거리와 심리적으로 안정된 장소라 보기에 어렵다. 또한 시와 목향의 거리 입구 근처에 있는 전기함과 체육회관 측면에 있는 환풍구와 같은 시설물들은 조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심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



시와 목향의 거리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의 사진과 같다.

<표 4> 시와 목향의 거리 문제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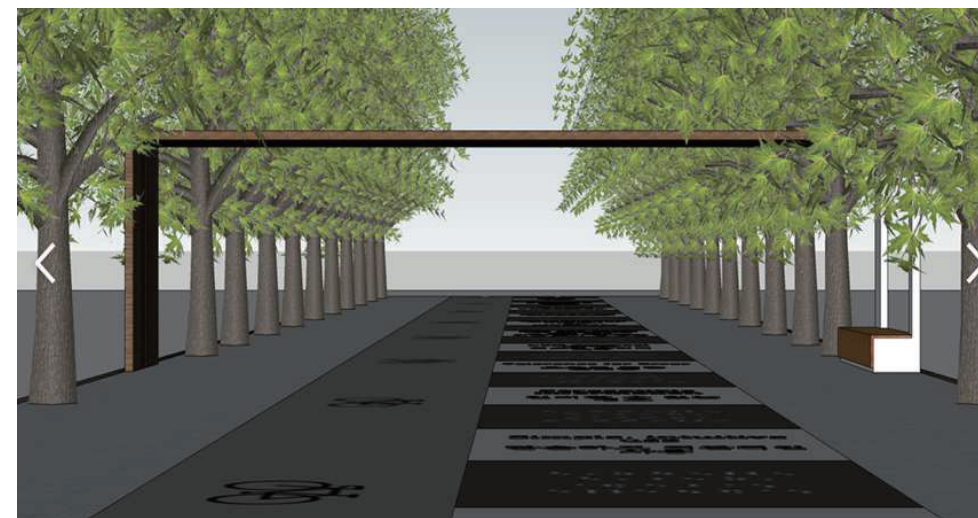
구분	내용과 사진	
산만한 공간 구성	공간 구성을 위한 펜스 설치 필요 	통일성 없는 시설물 설치 위치 
이동의 어려움	보행의 방해물 	휠체어 이동의 어려움 
시각적 공해요소	형광색의 색채 공해 	시설물 조형적 해결 모색 필요 

### 4-3. '시와 목향의 거리' Fun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안

#### ①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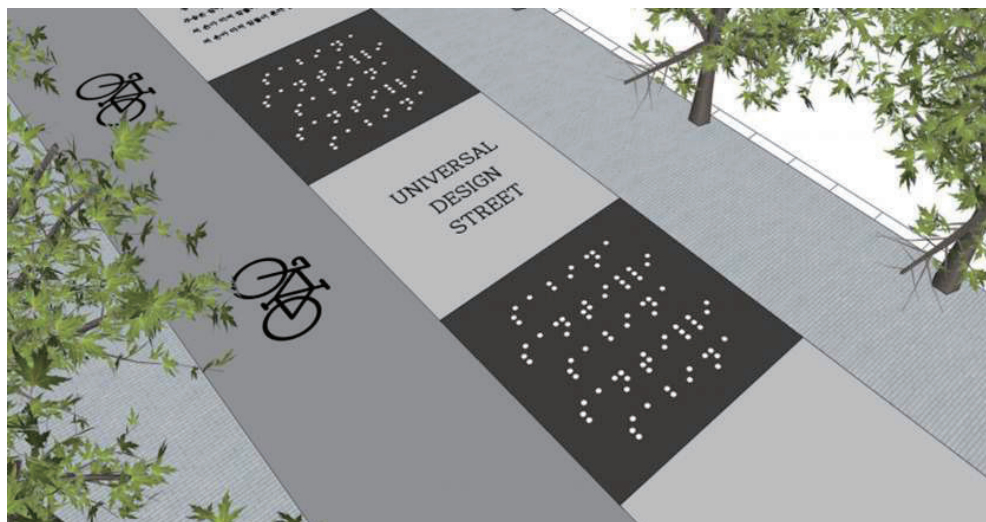
기존의 시와 목향의 거리는 곡선형의 거리 모양과 다양한 구조물의 설치로 걷기에 복잡하다. 따라서 최종 제시안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도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는 보행자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목적지에 도달하기 용이하다. 거리 중간 중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여름철 직사광선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벤치를 설치하여 긴 거리를 걷기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아동이 앉아 쉴 수 있도록 하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보행자 또한 앉아서 시간을 머물 수 있다.

<그림 9> 단순하고 직관적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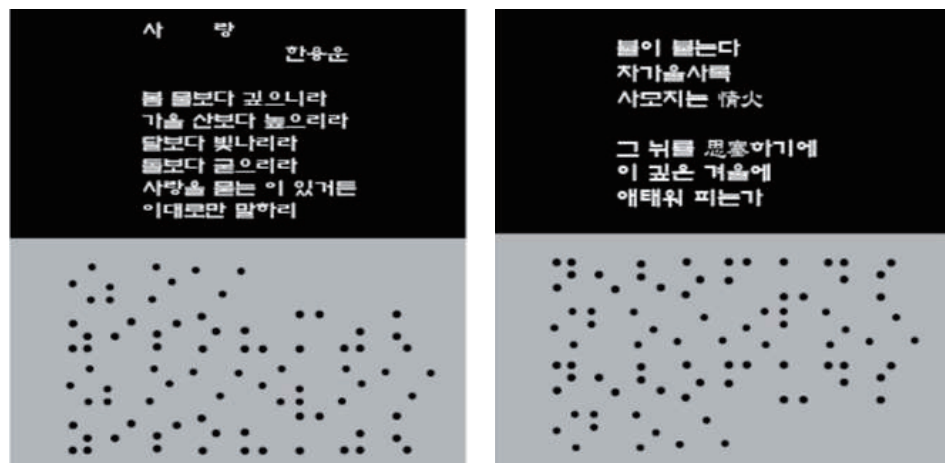
기존의 거리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충돌 위험이 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로에 침입하기 어렵도록 울퉁불퉁한 점자를 보행로에 설치하였다.

<그림 10> 점자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의 분리



시와 목향의 거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거리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를 활용한 거리를 구성하였다. 이는 거리의 역사적인 특징을 의미하므로 역사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신, 기존 거리는 돌에 시의 내용을 새겼다면 최종 디자인은 점자를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바닥에 새기고자 하였다.

<그림 11> 시와 목향의 거리 역사성 존중



기존 거리의 또다른 문제점은 야간 보행에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조명장치는 높은 가로등이 있으나 높은 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바닥의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노화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노인과 눈높이가 낮은 아동이 걸기에 위험한 거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안은 가로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바닥조명을 설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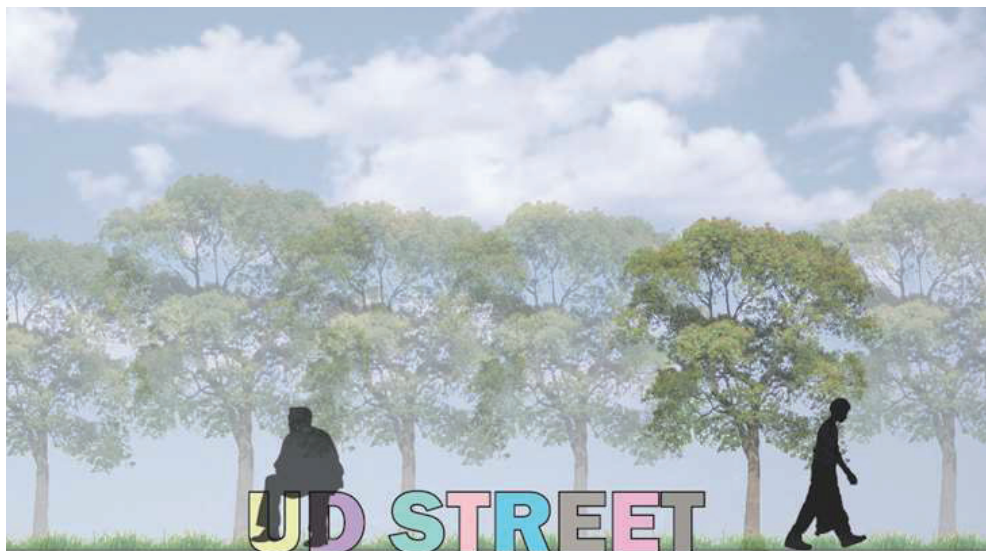
<그림 12> 바닥조명 설치



②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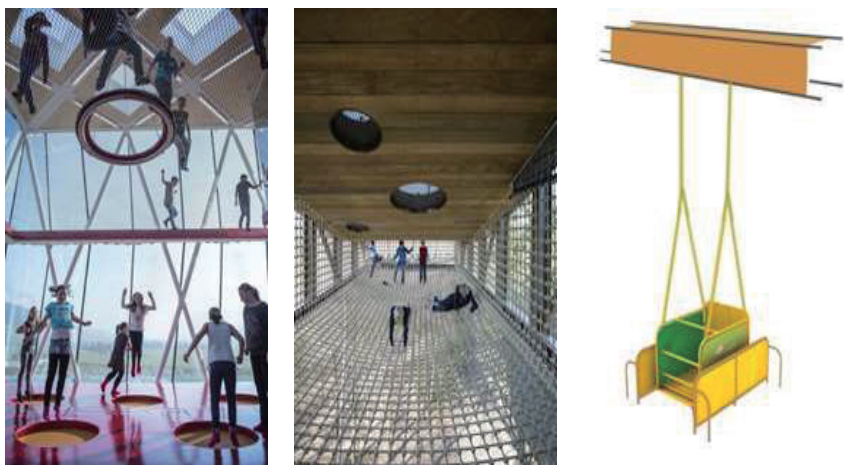
본 최종안의 중요한 컨셉은 '즐거움'이다. 이를 위하여 스트리트 퍼니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시와 목향의 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상징화를 위하여 이를 벤치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스트리트(Universal Design Street)을 줄인 'UD STREET'을 형상화하여 벤치로 제작하였으며 앉으면 조명과 소리가 나도록 하여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2안에서 제시한 온돌벤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3> UD STREET 모양의 벤치 디자인



기존 거리 옆에 있는 체육회관의 구조물을 활용한 디자인 또한 2안에서 제시하였다. 2안에서 예술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 무대를 제안하였는데 최종안은 예술 작품 전시와 휠체어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 H빔을 활용한 놀이시설 : 휠체어 그네와 그물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각인하기 위하여 향기를 이용하고자 한다. 아로마나 장미향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다. 즉, 내가 좋아하는 향이나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 그 공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향기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특정 향을 맡으면 반사적으로 향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을 시와 목향의 거리에서 맡게 할 것이다. 시와 목향의 거리를 보면 향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향을 맡으면 시와 목향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림 15> 향기 테라피 : 향기를 활용한 거리 인지



최근 도시문제의 이슈 중 하나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식물을 활용하여 벽을 만들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와 목향의 거리를 찾는 사람들 또한 식물로 구성된 벽 앞에서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의 역할과 동시에 거리의 상징적인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lt;그림 16&gt; 바이오 월 포토존 : 미세먼지 저감 식물 활용



### ③ 공공 공간 활용

위에서 언급한 공연 공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막 구조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사광선이 강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겨울철에 철거하여 계절에 따라 천막을 이용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물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지 관리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넓은 공간을 덮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천막은 예술회관과 체육회관 사이 넓은 광장에 설치하여 예술회관과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회관과 연계한 작품 전시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야외 공간을 천막으로 덮을 수 있다면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비오는 날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lt;그림 17&gt; 계절에 따른 공간조형 구조물



예술회관과 체육회관 사이에 조성된 넓은 광장에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면 정기적인 버스킹공연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양천구는 장애인구가 많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lt;그림 18&gt;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경우, 기존의 식재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살아있는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가 심어진 흙 주위를 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자신이 원하는 식물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면 보

행자들은 식물 주변에 담배꽂초나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즉, 시민들이 식물을 직접 기르게 되면 발생하는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은 나무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시와 목향의 거리의 길이는 100m 정도이며 이 거리는 누군가에게는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긴 거리가 될 수도 있다. 나무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마하게 조성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걸기에 편안한 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원할 때 나무 아래에 생긴 그늘에 앉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한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림 19> 도시농장 미니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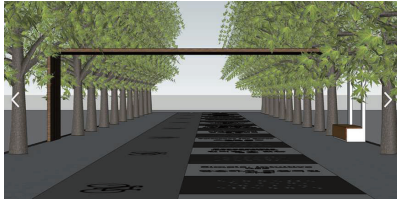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들이 모두 모이면 지역의 테마를 만들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또다시 거리를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놀거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들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낮에만 활성화된 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어두운 저녁에도 즐겁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지역 테마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빛을 활용하여 즐거운 요소들을 만들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될 것이다.

<그림 20> 지역 테마 축제 : 빛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조성의 최종안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표 5>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의 최종안

구분	내용 및 사진	
거리	-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자전거와 보행통로 분리 
	- 거리의 역사성 존중 	- 바닥조명 설치 
퍼블릭 퍼니처	- 유니버설 디자인 스트리트 의자 	- 온돌벤치 
	- H빔을 활용한 놀거리 	- 미세먼지 저감식물 활용(바이오 월) 

공공공간	- 천막 사용 	- 버스킹 공연 : 장애인과 함께하는 
	- 도시농장 미니분양 	- 지역테마 축제 

○ 유니버설디자인거리의 기대 효과

향후 시와 목향의 거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식 개선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능력의 부자유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주변인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즉, 장애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열악한 환경과 사람의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장애물 없는 거리의 마련이다.

기존의 시와 목향의 거리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충돌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충돌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며,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평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영유아나 노인 등 체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하여 거리 곳곳에 벤치와 쉼터를 조성하여 걷기 좋은 장애물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위치를 찾기 쉬운 거리이다.

서울시가 정한 표준 표지판을 활용하면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도할 수 있으나 길을 찾기에 다소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지판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글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가리키는 방향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입체적으로 지시하여 빠른 인식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거리를 표현할 때,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몇 걸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발달장애 등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밤에도 안전한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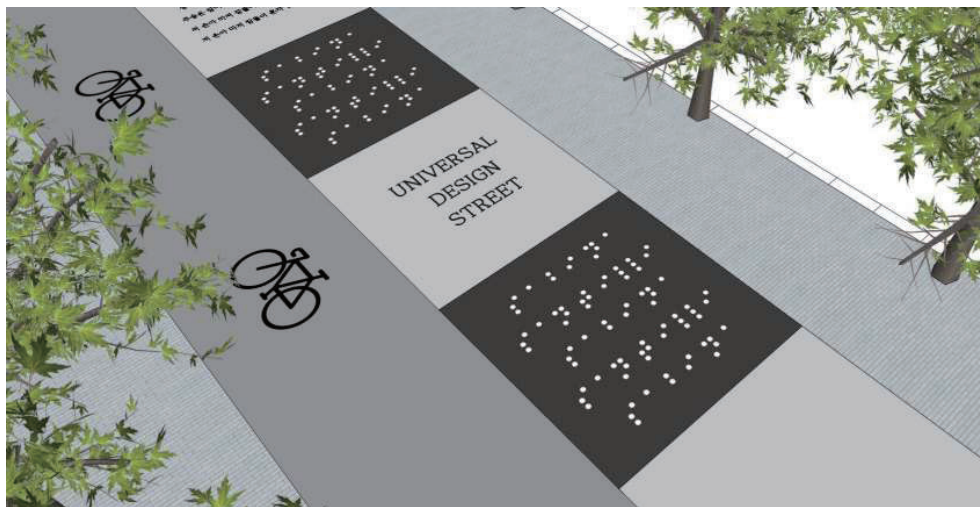
밤에도 안전한 거리는 밤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위하여 밤에만 볼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자 한다. 화려한 불빛을 활용하여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한다.

마지막, 구민이 모이는 거리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민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리마켓과 야시장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민이 모이는 거리로서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가 작용한다면, 안전한 거리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또한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 다섯째, 양천구장애인인권교육센터의 활성화이다.

양천구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기존의 장애체험은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공간의 문제와 같은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인식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내와 실외에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림 4> 시와 목향의 거리 : 점자로 구성된 시



#### <참고 문헌>

- 강서양천일보(2005). [http://104.newsk.kr/mobile/view.asp?group\\_nam104&intNum=4068](http://104.newsk.kr/mobile/view.asp?group_nam104&intNum=4068)
- 김민주(2018). 색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 24(4), 51-60.
- 김화중(2003). 색채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 남궁윤재(2011).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분석을 통한 개념 재정립. 한국디자인포럼, 31, 381-390.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2262&cid=40942&categoryId=34709>
-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서울 : 국제출판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수(2011).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경기 : 살림출판사
- 박현수, 이찬수, 장자순(2011). LED 조명색상이 정서자극의 평정과 재인에 미치는 효과, 감성과학, 14(3), 371-384.
- 이규일(2019). 공공도서관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 10(7), 155-162.
- 이효창, 허미경(2007). 공공도서관 실내 공용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6(5), 55-62.
- 전은정(2015). 고령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색채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색채학회, 29(2), 39-48.
- 정우석, 홍철운, 김남균(2007). 색채 조명 자극에 대한 인체 반응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7(4), 51-56.
- 정원준(2017). 색약자를 위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59, 169-182.
- 서울특별시(2013).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 Cohen, S.(1978). Environmental load and the allocation of attention. Advances in environmental psychology.
- Elliot, A. J., Maier, M. A., Moller, A. C., Friedman, R., & Meinhardt, J. (2007). Color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the effect of red on performance attain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6(1), 154-168.
- Levy(1984). Research into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23, 58-62.